

Daily Auto Check 2021. 6. 10(Thu)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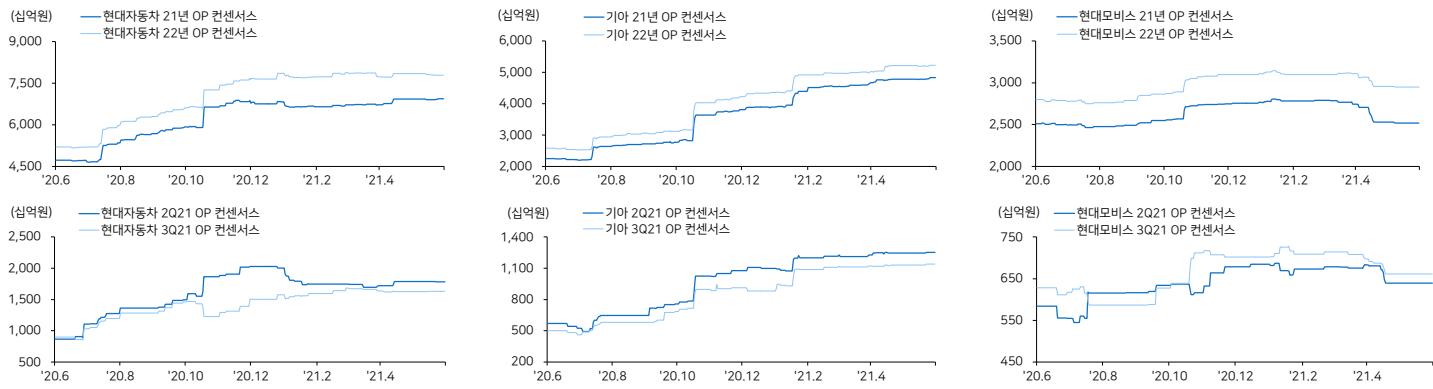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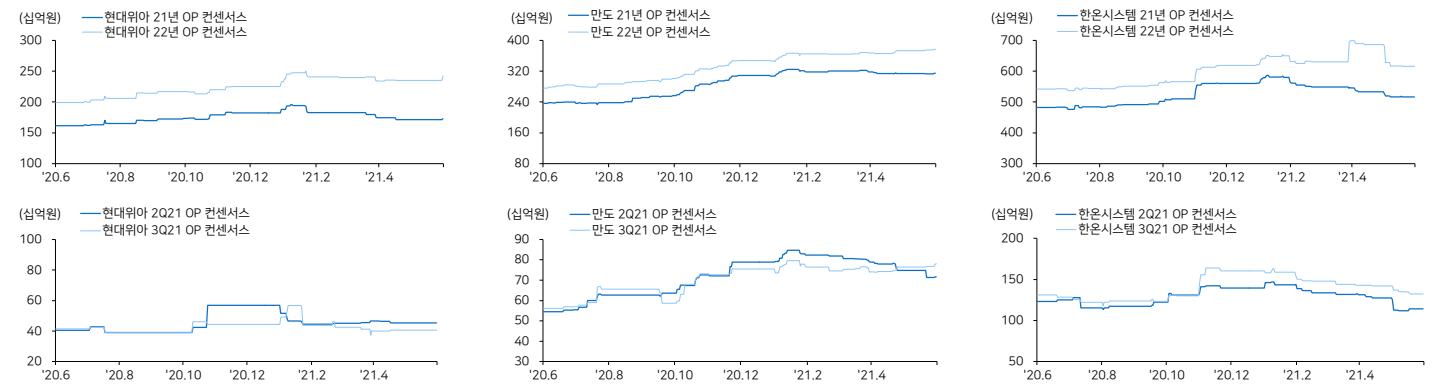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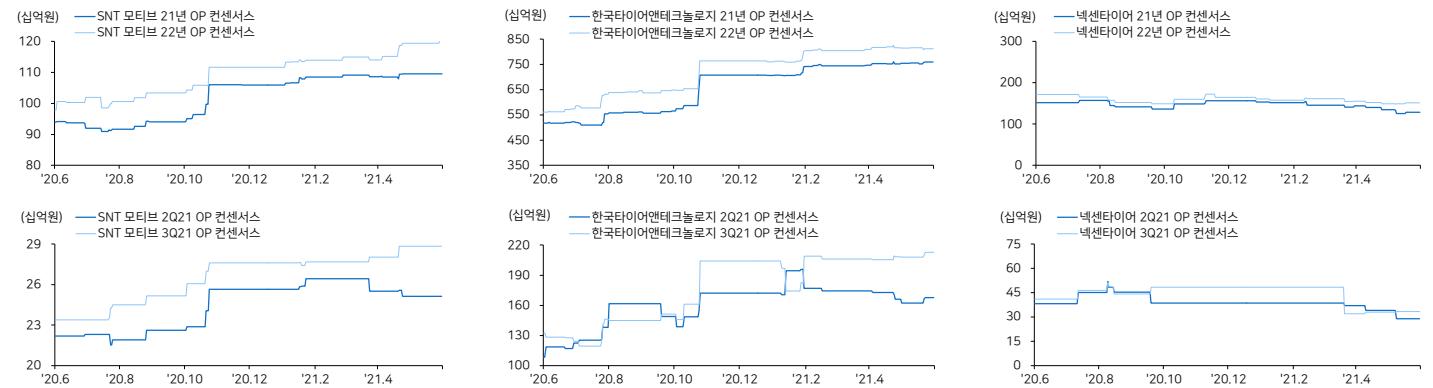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처음으로 포드 제쳤다...현대차·기아, '역전국' 쓴 비결은 (한국경제)

현대차·기아는 5월 미국에서 포드보다 1만3,523대 더 판매함. 현대차·기아가 월간 기준 현지에서 포드를 제친 것은 사상 처음이며, 포드는 미국에서 매년 240만 대 안팎을 판매해 120만 대 수준인 현대차·기아를 배가량 앞서움.
<https://bit.ly/3gm31bc>

정의선 현대차 회장, 오토트카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상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 주관 '2021 오토카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함. 수상 이유는 '10년간 무명 브랜드에서 글로벌 굴지의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한 성과'로 전해짐.
<https://bit.ly/3cyvfeI>

테슬라도 제쳤다... 中 500만원짜리 소형 전기차의 반란 (국민일보)

지난 4월 홍광미니는 글로벌 시장에서 총 2만9,251대가 팔려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섬. 홍광미니는 지난해 7월 기본 모델 4500달러(약 500만원)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등장했으며, 가성비와 젊은 여성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판매를 끌어올림.
<https://bit.ly/3v7hn4v>

Tesla's Robotaxi network could be more profitable than expected: ARK Invest (Teslarati)

ARK Invest 분석가인 Tasha Keeney는 미래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시간당 약 \$ 18 또는 마일 당 약 72 센트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Tesla가 '22년까지 Robotaxi를 출시할 경우 서비스가 널리 이용될 가능성을 20%로 전망.
<https://bit.ly/3g9ltnk>

현대차, 中서 전기차 충전 무상 서비스...전기차 '승부수' (THE GURU)

현대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무상으로 가정용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시작함. 일반 차량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내세워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https://bit.ly/3g7ZEw>

수출 할 배가 없어...한국타이어, 공장 가동 일시 중단 (동아닷컴)

9일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신복 부족 문제로 10~12일 사흘간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기동을 중단한다고 공시함. 최근 미국 유럽 등의 경기 회복으로 해당 지역 수출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선복 부족과 항만 적체현상이 겹쳐 나타난 현상.
<https://bit.ly/2RCGtKO>

인기 전기차 '한자리에...xEV 트렌드 코리아 개막 (미디어펜)

전기자동차 전시회, EV 엑스포 'xEV TREND KOREA 2021'이 9일 개막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됨. 현대차·동화·기아를 비롯해 EV 모빌리티, 충전기 및 배터리 업체 총 50개사가 참가하며 총 45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됨.
<https://bit.ly/3v7hn4v>

Argo AI's CEO says IPO expected within a year (Automotive News)

포드와 폴스바겐의 지원을 받는 자율 주행 스타트업 아르고 AI는 내년 공개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포드와 폴스바겐은 각각 이 회사의 지분을 42%씩 보유 중이며, 기업 가치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음.
<https://bit.ly/3g9ltnk>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